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전국 주택 라돈조사 실시

고창군이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관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제5차 전국 주택 라돈조사를 실시한다.

라돈조사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겨울철은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자주하지 않아 실내 라돈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검출되기 때문이다.

라돈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오는 9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선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적정 위치(1층, 침실 권장)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 후 조사원이 방문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다.

조사결과 실내 라돈농도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돈의 경우 무거워 바다에 깔리는 특성 때문에 주택의 경우 1층 세대로 신청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사회단체, 자연정화활동 실시

고창읍 새마을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생태환경보전협의회 등 4개 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고창하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읍에는 지난 25일 새벽 80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고창천 몇몇 구간에 산책로가 유실되고 구간 데크가 파손되는 수해가 발생했으며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쓰레기들이 쌓여있었으나 4개 단체 회원들이 뜻을 모아 정화활동에 나섰다.

박병도 고창읍장은 재해 복구에 적극 참여해준 사회단체들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관심을 가져 깨끗한 고창읍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찾아가는 복지 실현 나서

고창군이 8월 한달 동안 14개 읍·면의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241세대)와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 가구(726세대)를 집중 방문해 대상자의 고충을 듣고 대상자들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지원방안 등을 꼼꼼히 챙겼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된 대상자의 욕구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공적지원 120건, 이웃돕기 52건, 종합사회복지관 등 타기관 서비스 89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고 31세대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해 고독사 없는 따뜻한 고창군,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조선왕조실록 탐방로 개설 '순조'

## 내장산 국립공원 은적암지 9월말 경 준공 예정

내장산 국립공원 은적암지(地) 조선왕조실록보존 터 탐방로가 9월말 경 준공 된다.

탐방로는 전북도의 2017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도비 5억5000만원이 투입돼 개설 중이다. 규모는 연장 120m, 폭 1.5m이다.

관련해 시는 2015년부터 2018년 계속사업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용굴암과 은적암, 비래암을 잇는 약 660m의 탐방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2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용굴암 구간 100m는 지난해 완료됐고, 잔여사업인 비래암 구간은 2018년 개설할 계획이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국보 제 151호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은적암지(地) 조선왕조실록보존 터 탐방로가 9월말 경 준공 된다.

그 이후 조선왕조실록은 아산과 해주를 거쳐 묘향산 보현사에 보존됐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내장산에 보관됐던 실록을 토대로 모두 4부를 만들어 오대산과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사고 등에 보관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탐방로 개설사업은 2017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6기 핵심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매년 시군 당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를 단일 관광지로 연계해 도태관광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정읍은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이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고,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탐방로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는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생기 시장은 "탐방로 개설을 비롯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전례의 관광자원이자 조선왕조실록 보존 성지인 내장산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 시킴으로써 세계적 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부안군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올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54동, 빈집정비 91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 3동,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64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가 시행함으로써 살맛나는 주거복지 환경조성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부분개량은 소요금액의 1억 원 이내에 용자금을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주택 개보사업 추가 시행

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올해 사업대상가구 66동 중 43동을 완료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사업은 현재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주택 내에 편의시설 지원을 하려고 출입로·경사로·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동당 3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조성함으로써 행복하고 아늑한 주거환경 지원을 다하겠다"며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

## 내달 12일 동상 건립 국민모금 설명회 진행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이사장 이이화, 이하 동상건립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에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한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협의해온 동상건립위원회는 다음 달 안으로 정확한 장소를 확정짓고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를 맞아 종로(점역서 터)에 국민 모금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고장 정읍시가 적극적인 동참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9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연지아트홀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국민모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학 관련 단체와 사회직능단체 등 시민 200여명이 참여할 이 자리에서

는 동상 건립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모금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봉준장군 동상이 들어 설 옛 전역서 자리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전정군은 이곳에서 의연하게 최후를 맞았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의 불평등한 봉건제도를 개혁, 민권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지향한 반봉건항쟁이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고자 했던 반일 민족항쟁이다. 뿐만 아니라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지난해 광화문 촛불시위혁명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 평가된다.

후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02.2135-189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donghak1894.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의회,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 개최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가 지난 29일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을 관련단체, 기관, 각 정당,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출정식은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상임공동대표 및 시민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사발문 서명식과 하늘땅 우리몸짓 단원들의 '천명' 공연, 범시민 청원서명운동을 각계 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정읍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

의안'을 채택을 시작으로, 7월에 동학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4월에 걸친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23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도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범시민적인 공감대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5일에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건의안 채택

고창군의회는 3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혁명의 모태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위혁명의 근본적 가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평등사회의 구현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국이념인 경천애민의 홍익인간의 민족정신과 보국안

민의 자주독립,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 사상의 평등사회 구현 가치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당위성이 확보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민족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사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현재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이상 추구를 위해 신화적인 감오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하는 헌법을 개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맛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1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94-8900  
www.gangsanwine.com